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소리 A~D의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

소리	A	B	C	D
주파수(Hz)	150	1,000	1,500	2,000
소리 크기(dB)	30	30	63	55
최소가청강도(dB)	38	8	12	2
차폐 문턱값(dB)	38	20	38	6

- ①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
- ②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 ③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 ④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 ⑤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慣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예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분울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움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 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회하사 즉일 ①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회하여 사온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쩍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갇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네가 처치를 잘 못하면 나는 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피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올 것이니 억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맺어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 온가 하나이다.”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벌여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 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둡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 작자 미상, 『이화전』 -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화는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해칠 수 없다고 여기고 여산에 부임했다.
- ② 이화는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 ③ 모든 군사는 이화의 호령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
- ④ 모든 군사는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 ⑤ 이화는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 이화가 아니라 (노로군사나 백성.)  
각해 국의왕

19.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화는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을 통해 시도한다.
- ② 상은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행하고, 이화는 자신에 대한 백성의 선입을 되찾고자 ㉣을 행한다.
- ③ 이화의 부모에게 ㉠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화에게 ㉣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군사들은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게 되고, 백성은 ㉣을 근거로 하여 이화를 신뢰하게 된다.
- ⑤ 이화는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을 행하고,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다.

정답권기 동시에해줌.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이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B]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B]에서는 자신들과 상대방이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hmr -> 정답권기 동시에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읽어서 지문과 연결하여 or 문제 풀이해서 라곤 연결.

<보 기>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 ①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며 국가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자신을 ‘베고자 하’는 이화에게 ‘좋은 피’를 알려 주는 여백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잡귀’를 잡는 것에 관해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백에게 ‘여우를 잡’는 방법은 듣게 되나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수받지 못한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못맞어냄. 양여우 못죽여서 지킴. => 보기랑은 크게 상충하지 않음. 지문이랑 맞지 않음.  
=> 연결이 많음. 지문이랑은 양면이 쉽게 통함.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조설이 여러월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만 수평이 매우 어렵게 사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세조.

(가)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진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유사한 동사경 의 반복 22면 관련



여기서 2개 중 하나를 해야 함.

나 사물의 크기는 원래 정해져 있지 않.

사람이 여기에 따라 줄라질 수 있단 말한 셈이지가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간헐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무. 조. 건. 천천히 읽어라 - 이수익, 「달빛 체질」 -  
 수필 독해 기법: 이항대립적 사고 (A법과 B법 3명에게 설명해줘)  
 내가 읽은 그대로 평가해볼.

(가)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  
 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 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  
 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  
라네. ㉣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  
 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  
 (邵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홍충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시간이 310만 24-11 “있음을 논함” 0.4 점씩 해가면 - 체제공, 「용연사기」 -  
 1번이라도 읽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무조건 불합격이지가 6개해답에 없음. → 먼저 보기.
-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씩만 먼저로 문제 유형 (각 '변별' 시어에 연결)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마침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애초에 불문에 아히힘이라한 정서가 없기에 3번씩은 넘겨야 함.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그리 능  
인상을 논할 때 똑같이  
표현 안그래도 0,1,2,3개까지 이해해볼라.

다시 수필을 풍로 나라 내면

	행려 (사물 원래)	인간리 래로
래내적 존재 어려움	작은	크게 여김
관내적 존재 어려움	공	작게 여김
동면사	작은	사양: 작게여김, 공을: 크게여김
마음	작은	크게여김

# 국어 영역

9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이를 좋아

<보 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보기 밑의 (나) 밑에서 밑 (=방, 어둠) 이 원래는

- ①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들었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나면 내게  
완벽하게  
지워진

눈이부신 속성을 태양.

보기와의 관계에서  
틀리게 없지만,  
지문내용과 파악 해야 하는 문제.

2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②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③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자양'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 ④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양'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 ⑤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관장관 권술 극히!! : 사양에게 인식의 변화로 요구하고 있었는지  
이름이 30 바뀔진 모름.

26.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화자의 인식이,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것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아'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피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피꼬리 아니로되 a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벌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며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봄이왔음을 알리는 노래  
(= 이경 상사이다. 문장대조  
알아두자)

28번  
권지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며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길 이에서 더할소냐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냐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꽤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흘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 정관: 술.

(나)

㉢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패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피에 얻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동문에 패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다)

㉣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lt;제2수&gt;

- 채헌, 「석문가」 -

답: 공통점 일면, 정관시 보면서 소개해 나가기 (ex: (미 읽은 애버 지5기))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 ③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답: 맞. 실 없음.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의 자세한 의미 파악

- ① ㉠: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반갑게 느껴진다. 자연경물이 아니라
- ② ㉡: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지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③ ㉢: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드러난다.
- ④ ㉣: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⑤ ㉤: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이 드러난다.

영욕이라는 관어를 모르면 안됨. 영욕이 아니고 영욕이

네네가 흠보는 관어가 정관 판공의 정정적 근거가 되므로

물론 정관 안됨. 물라로 맥락으로 라 알수 있게 해국전가

Or 정답이 애버.

2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답 근거 명시해왔음.

- ① ㉢는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는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고,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③ ㉢는 화자가 계절이 변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④ ㉢는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⑤ ㉢는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고, ㉤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를 시험장에서 풀림

<보 기>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피'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령'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원'으로, (나)에서 '청풍'과 '명월'을 다룬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기'는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놓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전체적인 문제 및 지문의 난이도가 높음

답: 30번 32번 33번 34번

131~3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김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 온다. 이 떡으로 (또소) 아버지와 치전(길성 아버지)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영감을 찾아온다.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직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 자락을 잡아 채친다. 가슴이 떨리다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사랑 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藥) 맡아보는 ㉡ 선달이 나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네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영감이 나왔다.

“왜 그러우?”

양덕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인모탕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런 대모퉁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푸 물었다. ㉢ 양덕영감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주재소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입으우.” 순사

“무슨 일인데요?” 양덕영감

“나도 모르우. 어서 옷 갖다가 입우.” 순사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 꼬갈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뚱그래서 고깔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삼시간에 마당이 뻥뻥하게 모여 들었다. 원석이 처는 코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뚱그란 두 눈을 해해 내젓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섰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꼬갈 참봉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 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32번 경찰 32

꼬갈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물었다. ㉤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였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최경이 죽은 걸 몰랐던 양덕영감

“응? 치전이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중에서는 들렸다. 33번 선지 33

“그럼 잘 테진 당신도 갑시다.” 하며 ㉥ 순사는 부지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꼬갈 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원네를 개울러 가며 애원을 해 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지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세우고 주재소로 갔다.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중략)

치전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 그러나 읍내의 청년 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제 그 청년들은 원석을 붙들고,

“기위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을 바에야 오늘로라도 나오슈. 우리도 이리 올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짓 늙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소.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하며 남의 일이건만 왜 그러는지 성벽을 내어서 여러 사람을 충동이는 것 같았다.

㉧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 댁에 말해 볼까 하다가 편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죠.”

원석이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마다요. ㉨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일 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고 뻗뻗 하기가 바지랑대\*던데…….”

이것은 또 다른 청년의 말이다.

“그는 하여간에 김원석 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어테를 가시려우?” 치전이 자식

거의 길성이 짙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원석을 쳐다보며 말을 멈춘다. 길성 어머니는 어찌나 추운지 이제는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음질을 해 간다.

치전이 아내



소설에서  
줄; 말약에 1~5까지 라 맞소리 얻기 같은 거는  
지문의 세부사항 평가를 놓친 거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2세 봉인해서  
바르게 확인, 아니라면 상해한 양자 골2  
2세 봉인 (꼭 그분까지만 라서 2세 봉인)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전부, 절대, 아무도, ...) 중성으로  
라서 체크해 보기.

“왜 그러시죠? …… 저두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거나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하고 원석이도 발을  
멈추며 섰다.

“서울루? 서울루 가서 뭘 하려우?”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뽕기라도  
부쳐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마는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글쎄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렵어롭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이에 네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

- 염상섭, 「두 출발」 -

\*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31.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제한적  
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  
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③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특정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관찰자의 시선으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32.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를 대신하여 마당  
으로 나온다.
- ② ㉢는 불안한 상황에 처한 ㉠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 ③ ㉢는 ㉣가 ㉢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한다.
- ④ ㉢는 ㉢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와 동행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 ⑤ ㉣는 ㉢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여 ㉢를 주재소로 데리고 간다.

- ① ㉠: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  
하고자 애쓰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② ㉡: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 ③ ㉢: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 보며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준다.
- ④ ㉣: 대화에서 언급된 대상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⑤ ㉣: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특정  
사물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눈기에서 A라고 말하긴 선지에서는 약간 위양상을 바꿔  
범극적으로 유발함 <보기> 정답률 50% 고난이도 문제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나,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며,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똥그란 두 눈을 뚫어 내뿜’은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꼬깔  
참봉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그까짓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약화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군. [“역정권이면 양력영감이 노비가 되었다는  
말? 뭔가 이상한데” 하고  
선지 4, 5번 보고 와-3  
관행음.
- ④ ‘쫓겨나게’ 된 원석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  
‘굽실’대며 ‘원네’라고까지 하는 꼬깔 참봉의 모습에서, 위 세대  
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